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2~8/18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상윳따니까야I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6	나로부터의 자유 세상을 비추다	진경	불광출판사
2	생활 속의 반야심경	김현준	효림	7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	페마 초드론	한문화
3	초발심자경문 강설	원인	민족사	8	삽시간의 황홀 그 너머에	최명숙	해조음
4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퇴우정념	민족사	9	사성제와 팔정도	김현준	효림
5	AWAKENING(깨달음 내 눈 뜨기)	VEN.POM-NYUN SUNIM	정토	10	시다림요집	불찬범음의례교육원	담앤북스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좋은 죽음에 관하여	몽테뉴	아르테(ARTE)북이십일	6	무영수 영원의 나무	금강	담마북스
2	한글 원각경	함허득통/원순	법공양	7	원측의 소에 의한 해심밀경	김윤수 역주	한산암
3	일상에서의 호흡 명상, 숨	래리 로젠버그/미산	한언	8	불멸(1)	이각 지음	지혜의눈
4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붓다의 가르침	월폴라 라훌라	맑은소리맑은나라
5	고요함의 지혜	에크하르트톨레	김영사	10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 있어요	틱낫한	운주사

선암사와 갯벌이 들려주는 생명의 기록



산사와 갯벌
열매하나 편집부 지음
열매하나
2만2000원

세계자연 · 문화유산 품은 순천
역사와 자연의 본래면목 담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됐다. 2021년 서천·고창·신안·보성-순천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충남 서산, 전남 고흥·무안·여수의 갯벌이 추가되면서 세계유산의 지도를 넓혔다. 이 가운데 순천은 한 지역에 세계자연유산(갯벌)과 세계문화유산(선암사)을 함께 품은 드문 사례다.

〈산사와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암사와 세계자연유산인 순천 갯벌을 함께 조망한 책이다. 선암사의 고즈넉함과 순천만 낙조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8년 전 서울에서 순천으로 이주한 저자들은 1년여 동안 두 곳의 다채로운 모습을 취재해 기록했다. 지역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계유산은 '관광지'가 아닌 '살아 있는 삶의 터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풍경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저자들의 고백은 세계유산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책은 태고종 총림으로서 오랜 세월 수행과 교육을 맡아온 선암사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담아낸다. 출가 수행자가 되기 위한 수계식, 스님과 주민이 함께하는 야생차 공동 울력, 템플스테이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행공동체의 모습을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소개한다.

또한 일반에 쉽게 공개되지 않았던 선암사의 성보와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문화유산을 선명한 사진으로 담아보는 맛을 더했다.

순천 갯벌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생물들의 서식지이자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 지구의 생명 다양성을 지키는 장소다. 여기에 흑두루미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 전봇대를 철거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며 염전을 다시 갯벌로 복원한 지역민들의 의지가 더해져 순천 갯벌은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보고가 될 수 있었다.



〈산사와 갯벌〉은 순천이 품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암사와 세계자연유산 갯벌을 함께 조망한다. 사진은 순천 선암사 전경. 현대불교 자료사진

책에는 지역 생태문화 활동가와 기록가, 사진가들의 목소리도 담겼다. 오랫동안 자연과 역사를 지켜온 이들의 시선을 통해 독자는 갯벌의 본래면목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내셔널지오그래픽 탐험가 김영래 작가의 스캐노그래피(Scanography, 스캐너를 활용한 촬영 방식) 작품은 염생식물의 생애를 한 화면에 담아내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을 이어가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전한다.

출판사는 8월 23일까지 순천 '나무들의 밤'에서 책에 담긴 사진을 전시하는 출간 기념전 '산사와 갯벌'을 개최한다. 061-755-0204

여행 끝에서 만난 삶의 풍경



삽시간의 황홀 그 너머에
최명숙 지음
도서출판 해조음
1만5000원

사진 · 시에 담은 여행 · 수행 · 삶
장애 넘어 걷는 길서 만난 희망

보리수아래 대표 최명숙 시인이 여행시화집 〈삽시간의 황홀 그 너머에〉를 펴냈다. 사진과 시를 함께 엮어 여행에서 마주한 풍경과 사람, 그리고 삶의 인연을 담아낸 작품집으로 길 위에서 발견한 삶과 존재의 의미를 조용한 시선으로 풀어낸 기록이다.

여행지의 아름다운 풍광뿐 아니라 오래된 사찰과 골목, 자연과 사람 사이에서 피어난 인연들이 시인의 언어로 되살아난다. 사진을 먼저 바라보고 시를 읽으면 한 장면에 담긴 감정이 더욱 선명해지고 시를 읽은 뒤 다시 사진을 마주하면 그날의 빛과 바람, 숨결까지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사진과 시가 서로의 여백을 메우며 독자에게 또 다른 여행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이 책에는 저자의 삶이 오롯이 스며 있다. 뇌성마비 장애를 지닌 최 시인은 이동의 불편과 수많은 제약 속에서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자에게 여행은 용기와 인내, 그리고 많은 이들의 배려가 함께한 도전이었다. 그는 장애를 삶의 한계가 아닌 새로운 시선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며 천천히 걸었기에 더 깊이 바라보고 더 오래 머물 수 있었던 순간들을 시로 빚어낼 수 있었다.

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성찰은 작품 곳곳에 잔잔한 울림을 더한다. 길 위에서 발견한 희망과 감사의 기록은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용기를,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의 삶과 여행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을 전한다.

임은호 기자

'덕질' 끝에 만난 '최애' 부처님



최애는 부처님
비구니연습생 지음
불광출판사
1만9000원

'비구니연습생' 유튜브로
2030세대에 불교 가까이

대중문화를 넘나들며 유튜브로 불교를 전해온 '비구니연습생' 계소영 작가가 신간 〈최애는 부처님〉을 펴냈다. 계 작가는 8월 12일 서울 연화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을 소개했다. 이 책은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즐기던 평범한 청춘이 부처님에게 호기심을 느끼며 시작한 '엉뚱발랄'한 불교 '덕질' 에세이다.

저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진심이던 '덕후'였으나 불화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삶을 오래 들여다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달라졌다. 그는 불교미술로 대학원에 진학하려던 시기, AI가 예술가의 자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자, 경전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후 불교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것을 보며 불교미술을 알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다. 이번 신간은 2년간의 유튜브 원고를 수정·보완한 결실이다.

책은 '최애'가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양한 시각으로 담았다. 절에서 무엇을 빌어야 할지, 업은 내 운명인지 등 일상 속 궁금증을 수다 떨듯 유쾌하게 풀어낸다.

특히 대중문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녹여냈다. '귀멸의 칼날'에서 생로병사의 비극을 읽고, '나루토'에서는 윤회의 고통을 꺼내 놓는 식이다. '원피스'에서는 해적 모험담을 넘어 신화적 해방을 불교적 세계관으로 풀어내고 지드래곤의 '삐딱하게'에서는 무상의 묘리를 찾는다. 작가는 "2030세대 '힙불교' 타깃 층에 맞춰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대중문화 요소를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필명인 '비구니연습생'은 대학 시절 블로그 명칭에서 비롯됐다. 출가 계획은 없지만, 유튜브로 대중과 소통하는 지금은 이 필명이 온전한 '본캐'가 됐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불교가 가볍게 소비되지만, 학부부터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기까지 불교미술을 전공한 그에게 불교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책 앞부분에는 불교를 대하는 진지한 마음가짐과 내면의 성장을 담고, 뒷부분에는 '애니 덕질 입문'과 '비구니연습생의 과몰입' 등 최근의 관심사를 배치했다.

계 작가는 현재 서울 연화사 내 MJ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녹화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고 불화를 계속 그려 나가는 한편, 한국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불교 경전을 듣고 익히며 불교미술을 즐기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배희정 기자



'비구니연습생' 계소영 작가가 8월 12일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 후 서울 연화사 내 MJ스튜디오에서 〈최애는 부처님〉을 손에 들어보이고 있다.

2026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태양광 만월등 · 소원성취등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사찰경내 연등 공사



만월등 (노랑/진분홍/초록/빨강/파랑)



자비연등



칼라연등



태양광 칼라 미니등



12cm(보라/파랑/초록/주황/진분홍/연분홍/적색/노랑), 등간격 65cm

소원성취등/정원등



황금등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13cm(진분홍) 20cm(주황)



광명연등



상점문의 및 안내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